

사진 : 전주용 프란치스코(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새 『로마 미사 경본』 신자들의 응답 바뀌는 구절

또한 사제와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제가 곧 나오리이다 →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 40,1~5,9~11

화답송 시편 85(84),9ㄱ~ㄷ과 10,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1.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2.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

에서 굽어보리라. ◎

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베드로 2서 3,8~14

복음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르코 1,1~8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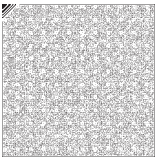
‘제36회 인권 주일·제7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담화문 바로보기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어느덧 대림초에 두 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오늘 전례의 주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촛불을 밝히려는 것이다.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첫째,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르 1,3)고 하였다. 주님의 길을 닦으라는 말은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 아닐까? 서로에 대한 미움과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교만의 산을 깎고 허물과 약점의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서로의 약점을 알고 보듬어 주고 챙겨주면서 함께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사야 예언자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이사 40,1) 이라고 외치며 하느님

의 말씀을 대신 들려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따듯이 위로하신다.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제자는 스승의 위로가 필요하고, 후배는 선배의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같은 처지가 되어 함께 머물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 위로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셨다. 다시 말해 희망을 주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다. 참된 위로는 함께 하며 이끄는 것이다. 우리 동행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요한처럼 겸손한 삶을 본받아야 한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은 겸손의 덕이 없

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 무대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조연이 없거나 엑스트라가 없는 연극이나 영화는 재미가 없으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선배지만 후배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후배를 칭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모두는 인생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요한은 기꺼이 조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인권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공감하고 경청한다면 추운 겨울이 얼마나 따뜻해질까 꿈꾸어 본다.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며 응원해 주고 위로해 주는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계절이다.

이 차 롱
바로로 신부
염포성당 주임



지금까지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기는 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차도는 있는지, 지치면 안 될 텐데. 걱정이 궁금증으로 읽힐까 조심스럽고 애타는 염려가 호기심으로 비춰질까 두려워 마냥 마음뿐입니다. 때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위로인 줄 알기에 기어코 이겨낼 것이라 응원하며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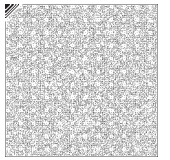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11(월)~12(화)
이차롱 신부(염포성당 주임)
12.13(수)~16(토)
김준성 신부(정관성당 부주임)
.....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2.10(일) 13:00~14: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우동성당)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12.14(목) **생생정보 생활정보**
출연 : 권구철 변호사(우동성당)

신부들의 수다
12.16(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김수환 신부

신앙애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쇄신을 위한 첫 해, 믿음의 해를 맞이하며 (1)



지난 5년간 우리 교구는 본당 재탄생을 염원하며 새 복음화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앞으로 삼 년을 ‘신앙애를 통한 공동체의 영적 쇄신’의 해로 설정하여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한 사목지침을 발표하셨습니다. 2018년 믿음의 공동체, 2019년 희망의 공동체, 2020년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신앙애의 세 가지 덕은 하느님의 덕으로 정의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덕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행위”라는 어원적 의미를 살필 때에 덕이란 결코 덕성스러운 척하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점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덕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이라고 정의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실 좋은 습관으로부터 자연스러운 덕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고 이러한 덕의 실천이 곧 인격의 완성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애 삼덕은 개인의 성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은총이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숙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

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의 거듭남이 요구됩니다. “실상 ‘신앙의 사막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당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은 삶의 근본 의미를 되새기고, 믿음의 보화가 주는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는 사목지침의 내용은 우리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애 삼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각인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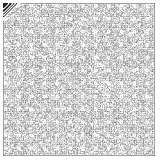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가 신앙애 삼덕을 갖추어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과 빛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쇄신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는 일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때에 가능합니다. 한 공동체가 지닌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며 전례를 경직되게 합니다. 이런 토대에서 교회는 올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바로 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고백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서 물질을 앞세우는 세상, 인간이 단지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이론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개념이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전승된 공동체적 신앙이기에, ‘교회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라는 교구장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부활하신 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축제를 거행하신다.” 는 아타나시오 성인의 말씀이 구현되는 본당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애쓰시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 믿음을 키우며 어울려 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고자 하는 건강한 믿음은 신앙의 사적 행위를 넘어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다짐과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삶의 고백으로 꾸려집니다. 신앙의 첫 주체는 교회입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을 향한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꾸려나가는 공동체로서의 길임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전 교구민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성장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도록 합시다. ■ 선교사목국

실천사항

1. 미사 참례를 통한 믿음 증진
2. 냉담교우 믿음 회복 운동
3. 목주기도 1억단 봉헌
4. 믿음 증진을 위한 본당 단체 피정
 - 믿음 강화 피정 프로그램 운영 (정하상바로영성관)



요세피나(37세) 씨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통하여 하느님 창조의 신비와 일상의 의미를 느끼면서 작은 행복의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행복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심하게 울어, 안아서 달래던 중 갑자기 근육이 강직되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아이는 무사했지만 요세피나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요세피나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해지지만 요세피나 씨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조차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언니는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

음으로 우울증에 빠져 매일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자녀들마저 양육하지 못해 어머니가 어린 조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며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끝에 지난 2016년에 '강직인간증후군'¹⁾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일을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은 이미 병원비로 다 쓴 뒤라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근육 강직 증상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거동 또한 불편하다 보니 늦은 오후에 먹는 한끼가 전부입니다.

현재 요세피나 씨는 일반 약으로

는 효과가 없고 신경정신과 약 중 근육이완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어 기억력이 감퇴되고, 기력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태이며 호흡도 힘든 상태로 아기처럼 무릎으로 간신히 기어 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으며 혼자 힘으로는 바깥으로 나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음과 같이(마태 9,2 참조) 병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요세피나 씨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와 정성을 보태어 주십시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1) 강직인간증후군 : 진행성의 근육 강직과 경련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주로 중추 근육을 침범하여 심한 경우 거동이 불가능해짐. 매우 드문 질환이며 쉽게 진단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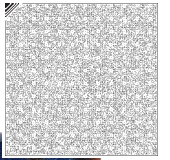
무거운 고통이 주어질 때 읊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인 듯합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301 읊기를 1-2장만 읽으셨나 봅니다. 읊기 전체를 읽어 보면 읊은 고통을 참기만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읊은 자신이 왜 고통을 겪는지 알려달라고 하느님께 따졌던 인물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느님을 만난 뒤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요. 그런 읊을 보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렇게 보니 참으면 복이 온다는 식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얻자고 일부로 고통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살면서 가급적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통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 뿐입니다. 읊처럼 하느님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묻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읊기는 그렇게 하느님께 의탁하며 고통의 문제를 진중히 따져 묻는 이는 반드시 하느님 안에서 답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느님에게서 답을 얻는 이는 자신에게 닥친 무거운 고통을 십자가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에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축제'



로사리오카리타스



망미



삼계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 김영환 신부)는 지난 12월 2일(토)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손삼석 주교를 비롯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연합회,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등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김장김치 2,500여 포기를 담갔다. 특별히 이날 지역 내 홀몸 어르신 17가정을 방

문하여, 김장김치와 쌀10kg를 전달했다. 또한 축제 때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기타 시설 등 로사리오 카리타스 산하 시설 4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금곡성당 외 여러 본당에서도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금곡



모라성요한



우정



장산

2018년 교구 사목안내를 위한 사제모임

지난 11월 29일(수) 푸른나무교육관에서 '2018년 교구 사목안내를 위한 사제모임'이 있었다. 이날 황철수 주교는 참석한 교구 사제들에게 2018년 사목지침인 신앙애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쇄신(1) '믿음의 해'에 관해 설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믿음의 생활에 전념하자는 취지와 함께 실천 지침들을 발표했다.



제34회 가톨릭대상 수상

우리교구 신자 윤경일 아우구스티노(좌동성당) 씨가 한국 천주교 평신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4회 가톨릭대상(정의평화부문)'을 수상했다. 윤경일 씨는 "이상은 저에게 가난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다가 그들의 외로운 가슴을 끌어 안아주는 양팔이 되어 주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 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일 씨는 지난 2004년 11월 '한끼의 식사기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4년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국제 빈민구호사업에 힘쓰고 있다.



고3 마음다지기 캠프



12월 1일(금)~3일(일) 푸른나무교육관
주제 : 나에게 와서 쉬어라 / 청소년사목국(국장 : 김대성 신부, 담당 : 김수환 신부) 주관

2,000차 축하합니다! 용호성당 천상은총의 모후 Pr. 온천성당 성교회의 모후 Pr.



용호 11월 21일(화) / 주임 : 임영민 신부, 단장 : 이효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온천 11월 22일(수) 주임 : 박상대 신부, 단장 : 이정인 비오

♣ 14일 : 니카시오, 드루소, 디오스코로, 마트로니아노, 비아토르, 스피리디온, 아벨로, 아르세니오, 아분디오, 에우트로피아, 요한(십자가의), 유스토, 이시도로, 조시모, 테오도로, 폼페오, 헤론

2017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12.29(금) 10:00 · 주교좌 남천성당
주례: 황철수 주교

예신 피정(1차, 2차, 3차)

대상: 차수별 대상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1차(초6): 1.8(월) 14:00~9(화) 13:00
2차(중1): 1.9(화) 14:00~10(수) 13:00
3차(중2~고1): 1.15(월) 14:00~16(화) 13:00
신청마감: 12.31(일) / 본당별 접수
회비: 3만 5천원(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 문의: 629-8760~2(성소국)

본 당

가야성당 12월 성령치유대피정

· 12.12(화) 12:30~17:0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 7번 출구)
강사: 김명선 신부(전포성당 주임),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010-6679-5345

남천성당 사무장, 사무원 구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주임 추천서 / 문의: 623-4527
자격: PC(한글, 엑셀), 사무장 운전(1종보통)가능자

모라성요한성당 관리장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 운전면허(1종 보통) / 문의: 316-1009

우동성당 관리장 구함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격: 1종보통(대형우대) / 문의: 747-4711

기관·제 단체·위원회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12.12(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교정시설 방학으로 후원회 미사 없음
문의: 441-7729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부산: 12.11(월)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12.11(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공연: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출연: 부산교구 생활성가인들
※ 천사세 송년미사를 겸한 미사와 공연
문의: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

빈민사목 후원미사

· 12.11(월) 10:3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수건, 생필품 등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Arca 청년성서모임 떼제 미사

울산: 12.11(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12.13(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김경원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12.14(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울산: 12.28(목) 10:00 옥동성당
주례: 부산교구 군중사제단(이상울 신부, 정태화 신부, 김창환 신부, 송재현 신부, 박근혁 신부, 정한시 신부, 박중석 신부, 최희 신부)
문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정하성바로영성관 대림절 무료피정

· 12.11(월), 12.19(화) 10:00~16:00

정하성바로영성관 성탄 준비 2박3일 피정

· 12.15(금) 16:00~17(일) 점심까지
회비: 10만원 / 문의: (055)383-3101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2.16(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12.15(금) 22:30
강사: 조영만 신부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2.11(월) 19:30 · 전포성당
· 12.13(수) 20:00 ·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버스안내카드 참조)
· 12.13(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성령묵상회 제436차(청소년)
· 1.5(금) 15:00~7(일) 17:30
회비: 8만원 (선착순 80명 접수 가능)
14: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 후원회월미사: 12.25(월) 성탄절 휴회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2.14(목) 20:00~23:00, 20:00 미사
강사: 최봉근 형제(ICPE 선교회)
- 100단 묵주기도(미사·안수) / 점심 제공
· 12.18(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12.15(금) 11:00 · 대연성당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12.19(화) 14:00 / 지도: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010-8879-2376(회장)

Arca 제59차 창세기 연수생 모집

연수: 12.29(금)~1.1(월) / 모집: 12.20(수)까지
·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462-1870(행정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겨울학기 <꽃예술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고정가치(하나구바리), 기초생활꽃장식, 꽃과 스케치, 동양꽃예술(입화), 독일PDF Florist, 독일PDF FloristMeister, 병화, 원예테라피, 웨스턴용종, 프레스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
개강: 1.8(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접수: 12.4(월)~1.3(수)
문의: 510-0951~3, edu.cup.ac.kr

오순절평화의마을 입소 안내

주변에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안내바랍니다.

[입소 대상자]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또는 노숙의 위험이 있는 자로서
① 무연고자 ② 연고자의 노령이나 사망으로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 ③ 연고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자
*부산/밀양 이외 지역은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055)352-4241(내선816/818)

'가정성화카드' 보급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요?

가족 사랑법

1. 바깥사를 표현하라.
2. 연이 끊어지지 않아라.
3. 일사불란을 표방하도록 노력하라.
4. 끊임없이 대화하고 진취하라.
5. 믿어라.
6. 위기를 용서하라.
7. 남다른 기도를 하라.

우리의 가족이 기도는 어떻게?

가정을 위한 기도

마리아의 모험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를 기도를 기록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재능이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의 성모님,
저희 모임을 위하여 불우하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인생을 사랑하여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광한 천상 가정을 함께 하소서. 아멘.

한국가정이 핵가족화에 이어 사회구조적인 영향으로 가족들의 '개별화 현상' 이 가속화 되면서, 사실상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일상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과거와 같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교구 가정사목국에서는 이러한 불가역적인 한국 가정공동체의 실태에 주목하면서, 가족들이 개별적인 삶의 현장에서 용이하게 가족들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성화카드' 를 각 본당을 통해 보급합니다.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p> <p>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존재활요양병원</p> <p>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병원장 최준 식(안토니오)</p> <p>상담 문의 525-7711 부산시 동래구 총원대로 372(안락동)</p>	<p>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p> <p>삼일누수탐지공사</p> <p>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삼일누수</p> <p>전화 : 202-3011 이 국 영(베드로)</p>
<p>동국자동차매매상사</p> <p>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폐차</p> <p>대표전화 010-3599-6420</p> <p>현 중 삼(요셉)</p> <p>자동차매매 관여 제14호 1단지</p>	<p>임플란트, 틀니, 심미치료</p> <p>뉴욕플란트치과</p> <p>원 장 송 현 열(가브리엘) 미국 뉴욕치대 유학</p> <p>634-2828</p> <p>지하철 1호선 범일역 10번 출구 바로 앞</p>	<p>사회복지법인</p> <p>성요셉의 집</p> <p>입 소 상 담</p> <p>T. (055)365-1910</p> <p>장기요양등급 1~5등급 (1~4인실 선택가능)</p> <p>홈페이지 www.st-joseph.co.kr</p>	<p>거 제 주 단</p> <p>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p> <p>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p> <p>632-0696 010-9331-6633</p> <p>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포장이사 전문 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p> <p>(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p> <p>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한미모피</p> <p>밍크, 여우, 각종모피제품 도소매</p> <p>명크코트, 소품 등 A급 리폼, 수선</p> <p>박재석(베드로)</p> <p>T. 645-8877, F. 647-8877</p> <p>부산진시가지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p>		

가톨릭서예인회 12월 정기모임

· 12.12(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 010-8521-9522(회장) ※회원 수시 모집

제14회 부산가톨릭문학상 시상식

· 12.14(목) 18:00 · 가톨릭센터 1층 소극장
문의 : 010-2831-3530

음악교육원 오르간 연주회(전공2급 본심)

· 12.10(일) 16:00 · 이기대성당 / 지도교수 : 최영희
연주자 : 김수경, 배정희 / 문의 : 517-8241~2

음악교육원 9인의 <성탄이야기> 음악회

· 12.18(월) 20:00 · 만덕성당
문의 : 517-8241~2(음악교육원)
010-3923-1692 / 주관 : 최유정오르간클래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중독상담 및 여성심리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형태 : 사이버상담
자격 : 중독상담-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여성심리상담-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이상 소지자
접수 : 12.7(목)~21(목) / 지원 : 본원 홈페이지(edu.cup.ac.kr) 신청서 출력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sasett99@cup.ac.kr) 제출
문의 : 510-0951~3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11(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12.12(화) 10:00 · 이기대성당
· 12.13(수) 10:00 · 월평성당
· 12.15(금) 10:00 · 사직대전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12.11(월) 10: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사랑의성모수녀회BPS 후원가족미사

· 12.11(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묵상 관상기도 피정과 미사

· 12.14(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 미사

· 12.14(목) 14:00 · 삼위일체수녀원
문의 : 463-7660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모임

· 12.14(목) 14:00 · 가톨릭센터 강의실 302호 사랑방 / 문의 : 010-3334-8300(한기철 신부)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12.15(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강사 : 전찬용 신부 / 문의 : 010-3245-7900

예수고난회 은인 1일 피정

· 12.11(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다윗과 압살롬의 죽음(2사무 19.1~9)
강사 : 염천기 신부
문의 : (02)924-8627, 010-3579-7560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14(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16(토) 11:00(법일성당) 임구 김안과 09:00(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2017년 열린 대립밤
· 12.17(일) 19:30 · 수녀원 / 문의 : 753-1131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조리사 구함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마감 : 12.18(월), 면접 : 개별통지
근무지 : 수녀원 주방 / 문의 : 753-1135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겨울 가족 피정(어머니와 딸)
· 12.30(토) 14:00~31(일) 13:30
· 양정동 성모여고 내 수녀원 / 회비 : 5만원
주제 : 두드려보세요, 엄마의 문! 나의 문!
대상 : 20세 이상 딸과 어머니(선착순 10쌍)
문의 : 010-2430-7816(조 테레사 수녀)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구유만들기 및 봉헌

· 12.16(토) 14:00 / 대상 : 누구든지(사전신청필수)
· 본원 / 내용 : 구유만들기, 봉헌 및 친교
문의 : 010-3113-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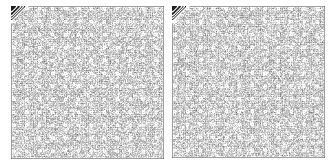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30(화)~2.1(목) · 오사카 26성인 순교자 순례(대한항공 120만원)
· 4.23(월)~5.5(토) · 서유럽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주교회의<명도회 장학금>

2018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신청 : 12.18(월) 까지
부분 :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접수 :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1@cbck.or.kr)
문의 : (02)460-7533(주교회의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차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의요한의료봉사수도회	12.16(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12.17(일) 13:30	본원	010-2835-4858
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12.17(일) 14:00	수원 본원	010-8833-8107
작은예수수녀회	12.17(일) 14:00	서울 군자동 수녀원	010-8939-797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새해 해맞이 새 예루살렘 밤샘 기도회

· 12.31(일) 22:00~1.1(월) 06:00 · 새 예루살렘 사전 전화 신청(통행을 위한 비표 발급 위해)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전례 침묵 피정 : 12.22(금)~25(일)

천상의 씨앗 in 씨든(목주기도모임)

· 매월 셋째 일요일 14:00 / 대상 : 미혼여성
· 사랑의씨든수녀회(동아대 부민캠퍼스 근처)
문의 : 010-6697-5004

행복수녀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 1.2(화) 15:00~7(일) / 대상 : 청년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회비 : 38만원
문의 : 010-9086-1882, 010-3340-0201

투스프교베네딕도회 2017 청년 성탄전례피정

· 12.24(일) 16:00~25(월) · 대구수녀원
회비 : 2만원 / 문의 : 010-8519-3431

성바오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신구약성경 입문과정(2년) 학생 모집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us.pauline.or.kr 바오로팔
접수 : 1.31(수)까지 / us@pauline.or.kr
문의 : (02)944-0819~24, 0840~2(이러닝)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 2018.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기숙사 무료, 수당지급, 취업
대상 : 15~30세 남자 / 문의 : (02)828-3600

2018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광주)

· 7.20(금)~(총 7차, 2박 3일)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 참가비 : 10만원
주제 : 랄랄라 성가적 속으로 yo!
신청 : 12.20(수)부터(선착순 마감) / 대상 : 초3~6
문의 : (062)373-0942, 010-4141-2271

2018년 초등부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대전)

· 7.21(토)~8.16(목) (총 8차, 홈페이지 참조)
·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주제 :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립 4,4)
접수 : 12.27(수) 10:00 부터 / 대상 : 초등부
문의 : (042)584-0654, www.sycenter.net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인성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612-5611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김갑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임플란트, 틀니, 유지관리 전문치과 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재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찬아(요한 급구) 743-3334 해운대 31번 중점 맞은편</p>
<p>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납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엘),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교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네스)</p>	<p>2018년 신심단체 성지순례 상담/예약 미래고속관광 임애경(젼마) 055-333-6300, 010-9809-6300</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3층</p>	<p>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재원(마태오) 558-7575 은전장역 동래몰플러스(티원) 우성빌딩 3층</p>